

농구 안준호 감독 “최고 응집력·사기로 만리장성 넘겠다”

남자 농구대표팀국제농구연맹 아시아컵 8강 진출...꿈에 99-66 승
문정현 “신장 차 나지만 압박 수비·착실한 박스 아웃으로 승리할 것”

2025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8강에서 중국과 만나는 안준호 남자농구 대표팀 감독이 최고조에 오른 팀의 응집력과 사기를 바탕으로 만리장성을 넘겠다고 선언했다.

안준호 남자농구 대표팀 감독은 12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2025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8강행을 확정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지금 응집력, 집중력,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며 “이 분위기를 바탕으로 반드시 만리장성을 넘겠다”고 말했다.

안준호호 농구대표팀은 이날 꿈과의 8강 진출전에서 99-66으로 이겨 오는 14일 중국과 4강행 티켓을 놓고 맞대결한다.

안 감독은 “경기 시작을 잘하지 못했는데, 선수들이 의욕을 보이면서 우리 특유의 압박 수비, 주도권, 제공권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손쉽게 승리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

지난 카타르전과 레바논전에서 3점포를 폭격했던 한국은 이날 3점 38개 중 8개를 성공(21%)하는 데 그치며 외곽슛 난조를 보였다.

특히 1쿼터에서 첫 10개의 외곽포가 모두 림에 맞고 나오며 답답하게 시작했다.

안준호 감독은 “슛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기복이 있다”며 “더 좋은 오픈 찬스를 만들어 슛을 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슛 난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

수비, 리바운드와 곧바로 이어지는 속공에 신경 써야 하고, 실책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테랑 김종규(정관장)와 이승현(현대모비스)이 팀을 잘 이끌고 있다며 칭찬하기도 했다.

안준호 감독은 “만형 김종규와 이승현이 중심을 잡고 선수들을 리드하고, 수평적 사고로 의사소통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코칭스태프이자 플레이어”라는 안 감독은 “그만큼 경험이 많고 농구를 잘 알기에 두 선수를 믿는다. 언제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신뢰를 보였다.

조별리그 2차전 카타르전 경기 중반 무릎을 다쳐 3차전 레바논전에 결장했던 여준석(시애틀데)은 이날 마지막 쿼터만 뛰며 9점을 올렸다.

안준호 감독은 대한민국농구협회를 통해 “여준석의 출전 후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100% 슛 성공률로 18점을 기록하고 8리바운드 5스틸을 곁들여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문정현(kt)도 중국전 승리를 다짐했다.

문정현은 “중국은 우리보다 신장이 크고, 더 빠른 선수도 많다”고 경계하면서도 “우리고 우리만의 팀 컬러가 있다. 압박 수비를 펼칠 거고, 미스 매치 상황에서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적극적인 손질과 박스아웃 등 감독님이 주신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면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윤기(kt)는 “경기 초반 준비한 수비가 제대로



안준호 감독

되지 않아 상대에게 슛을 많이 허용하며 힘들게 시작했다. 2쿼터부터 준비한 수비를 차근차근 하다 보니 슛도 잘 들어가고 승리할 수 있었다”며 “팀원들이 다 같이 로테이션을 돌며 스틸한 부분이 특히 좋았다”고 총평했다.

/연합뉴스



문정현이 12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2025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꿈과의 8강 진출전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FIBA 홈페이지 캡처〉

전남선수단, 전국체전 출전 준비 ‘이상무’

10월 17일~23일 부산 일원
49개 종목·1737명 파견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737명의 전남 선수단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에 따르면 전남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49개 종목(180종별) 1737명의 선수와 임원을 파견한다.

지난해 대회(49개 종목 177종별, 1658명)에 비해 종별 3개, 선수단 79명이 증가했다.

전남은 전체 50개 종목 201종별 중 수중빙수영 1개 종목을 제외한 49개 종목 180종별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남 선수단은 육상·양궁·당구·댄스스포츠 등 전통 강세 종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축구·레슬링·요트에서도 메달이 예상된다.

또 지난해 대비 선수단 규모가 커진 만큼 금빛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이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1737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지난 대회 개막식에서 전남 선수단이 입장하는 모습. <전남도체육회>

전남은 앞서 목포대 육상·탁구팀 창단, 행정기관직장팀의 우수선수 보강, 학교체육 및 스포츠를 융합성과 등을 통해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전남은 지난해 경남에서 열린 제105회 전

국체전에서는 금 43, 은 42, 동 84개(총 169개)를 획득하면서 종합득점 3만2363점을 얻어 종합 12위를 기록했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플랜티스가 1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헝가리 그랑프리 육상대회 남자 장대높이뛰기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파이더맨’ 듀플랜티스 13번째 세계新

헝가리 그랑프리 남자 장대높이뛰기 경기서 6m29 기록

‘스파이더맨’ 아만드 듀플랜티스(25·스웨덴)가 두 달 만에 육상 남자 장대높이뛰기 세계 기록을 바꿨다.

듀플랜티스는 1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헝가리 그랑프리 남자 장대높이뛰기 경기에서 6m29를 넘었다.

6m11을 1차 시기에 성공해 6m02의 에마누일 카라리스(그리스)를 제치고 우승을 확정된 듀플랜티스는 바를 6m29로 높였다.

1차 시기에는 실패했으나, 2차 시기에 바를 넘어 지난 6월 16일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자신이 작성한 6m28을 1cm 경신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세계육상연맹은 “듀플랜티스가 자신의 통산 13번째 세계 기록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듀플랜티스는 2020년 2월 9일 세계육상연맹 인도어 투어미팅(폴란드 토룬)에서 6m17을 넘어

2014년 르노 라발레니(프랑스)가 작성한 종전 실내 세계기록(6m16)을 6년 만에 바꿨다.

2020년 9월 18일 이탈리아 로마 다이아몬드리그에서는 세르게이 비카(우크라이나)가 1994년에 세운 종전 기록 6m14를 1cm 넘어선 6m15의 실외 세계신기록도 세웠다.

13일 현재 남자 높이뛰기 실내외 통합 1~13위 기록(6m17~6m29)은 모두 듀플랜티스가 작성했다.

듀플랜티스는 올림픽 2연패(2021년 도쿄, 2024년 파리)와 세계선수권 2연패(2022년 유진, 2023년 부다페스트)도 달성했다.

올해 듀플랜티스의 목표는 ‘6m30을 넘고, 도쿄에서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하는 것’이다.

다음달 13일 개막하는 도쿄 세계선수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날, 듀플랜티스는 기록을 6m29까지 높였다.

/연합뉴스

광양시청 불링팀, 대통령기 종합우승

전국실업불링대회 이어 2연승

광양시청 불링팀이 시즌 2번째 종합우승을 이뤘다.

광양시청 불링팀(감독 이춘수)은 최근 경북 구미에서 끝난 ‘제40회 대통령기 전국불링대회’ 남자일반부에서 금·은·동메달을 각각 2개씩 획득하며 종합우승팀이 됐다. 지난 5월 전국실업불링대회에 이은 종합우승이다.

광양시청은 2인조와 5인조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최복음·가수형은 2인조 경기에서 2967점(평균 247.3점)을 합작하면서 울주군청과 경기 광주시청에 앞서 금메달을 얻었다.

최복음·가수형은 5인조 경기에서도 박상혁·백승민·김동현과 호흡을 맞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은 7102점(평균 236.7점)을 기록하면서 2위 경기 광주시청에 142점 차로 앞서 1위에 올랐다.

김동현·유승호·가수형이 출전한 3인조 경기에서는 합계 4212점(평균 234점)으로 은메달을 더했다.

가수형은 개인 종합에서 종합 5635점(평균 234.8점)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가수형은 개인종합 상위 10명이 경쟁을 펼친 마스터즈에서도 은메달을 따냈다. 김동현은 동메달을 기록했다.

곡성군청은 여자 일반부에서는 2개의 동메달을 차지했다. 김현미·김문정·손현지가 3인조에 이어 5인조에서도 팀을 이뤄 2개의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오페라단 2025 달빛동맹교류공연 <안드레아 세니에>

일시 : 2025-08-29(금) 19:30
2025-08-30(토) 15: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2-2502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